

## 아루투르 요레스(Arthur Jores)의 의학적 인간학

진교훈\*

요레스(Arthur Jores, 1901-1982)는 1956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인간과 그의 질병』<sup>1)</sup>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심신상관학과 인간학적 의학에 대단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심층심리학과 현대의학(Medizin이 아닌 Heilkunde)간의 종합을 시도한 주 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라트너는 말한다.<sup>2)</sup> 그는 심층심리학과 의학의 종합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저술을 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저술로는 1961년 『병든 인간』<sup>3)</sup>, 1966년 『현대 의학의 위기』<sup>4)</sup>, 1967년 『위탁받은 인간존재』<sup>5)</sup>, 1969년 『내일의 의학을 위하여』<sup>6)</sup>, 그리고 같은 해에 케레크야르트(M. von Kerekjarto)와 공저로 『천식환자』<sup>7)</sup>, 1981년에 대표저자로서 심신상관학의 교과서를 30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술한 『요레스 실천적 심신상관학』<sup>8)</sup> 등이 있다.

### 1. 그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아루투르 요레스(Arthur Jores)는 1901년 본(Bonn)에서 태어났고, 함부르크 의과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이어서 전임강사가 되었다. 내과전문의로서 내분비학자로 출발했다. 그는 처음엔 호르몬 기능의 24시간 리듬의 연구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는 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1) Jores A. Der Mensch und Seine Krankheit : Grundlage einer anthropologischen Medizin. Stuttgart : Enke, 1956.

2) Rattner J., Danzer G. Medizinische Anthropologie. Frankfurt a.m. : Fischer, 1997 : 87

3) Jores A. Vom kranken Menschen. Stuttgart : Enke, 1961.

4) Jores A. Die Medizin in der Krise unserer Zeit. Bern : Huber, 1966.

5) Jores A. Menschsein als Auftrag. Bern : Huber, 1967.

6) Jores A. Um eine Medizin von morgen. Bern : Huber, 1969.

7) Jores A., von Kerekjarto M. Der Asthmatiker. Bern : Huber, 1969.

8) Meyer Adolf-Ernst., Freyberger H. (hrsg.) Jores Praktische Psychosomatik, Bern : Huber, 1981. 1996년 개정판.

치 시대의 '무조건 통합하는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학자로서의 이력은 상당기간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나치정권에서 배반자로 고발되어 사형언도까지 받았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부인과 함께 개신교로부터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그의 사상 속에서 가톨릭의 인권존중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의 모든 저술에서, 특히 의학에 관한 논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종교적 태도는 순전한 과학적 사고와 연구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고 그는 순전한 과학적 사고도 잘 소화해 냈다. 그래서 비종교적인 프로이트 학파의 학자들까지도 그의 호르몬과 천식에 관한 저서를 학교의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철학적 사고를 할 때에는 그의 종교적 자세가 간혹 난관에 봉착했던 것 같다고 라트너는 평했다.<sup>9)</sup>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1945년 함부르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부임했고 동시에 함부르크 의과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때 그의 주요관심은 심리분석(정신분석)과 심리치료(정신치료)에 대해 호응을 얻는 것이었다. 그는 정규적인 심리분석훈련을 받았고 육체적 질병의 심리적 배경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천식에 관한 연구에서 천식환자의 고통의 심리적인 병인론(病因論)의 관점에서 아주 중대한 통찰을 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1950년대 초기에 이미 심층심리학적 이론과 실습의 중요한 전문가가 되었다. 이 후 그의 심신상관학에로의 전향은 이 심층심리학으로부터 한 차원 더 높게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페터 한(Peter Hahn, 1931-현재, 하이델베르크 의대교수 및 동대학병원 내과과장)은 요레스를 내과의로서 심신상관의학의 학과 의학적 인간학 발전에 대단한 기대를 했다고 칭송한다.<sup>11)</sup>

## 2. 인간과 병 : Homo patiens

요레스의 초기 저서인 『인간과 그의 병』(1956)은 그의 사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그의 사상을 명백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요레스는 병의 의미를 묻고 이 물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연과학적인 의학과 상

9) Rattner J., Danzer G. 앞의 책. 87.

10) Freyberger H. A. Jores. (hrsg.) Meyer Adolf-Ernst., Freyberger H. 앞의 책. : 11-14.

11) Hahn P. Die Entwicklung der psychosomatischen Medizin. (hrsg.) Balmer H. Die Psychologie des 20. Jahrhunderts. Bd.I. Z rich : Kindler, 1976 : 945

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자연과학적인 의학은 “원인분석에 정향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이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병의 현상이 해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발생론은 단지 병의 적은 부분에 관해서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요레스는 병의 ‘의미고찰’을 특히 신경증과 심신상관적 발병에서 할 것을 주장한다.<sup>12)</sup>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기생충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현미경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물질로 파악할 수 있는 병원체들이다. 영양 이상(異常)도 병을 만들며 강력한 쇼크(Traumatisierung)도 병을 만든다. 이 밖에 병의 원인들로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도 그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질환의 진단의 설명은 정통의학(즉 학교의학)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레스는 학교의학은 그가 ‘인간적인 병’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인간적인 병이란 예컨대 노이로제(신경증)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요레스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병들은 폭력이 아닌 삶의 위기와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들은 실존적인 좌절을 연출한다. 인간의 삶은 숙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숙제를 잘 풀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요레스에 의하면 의학은 현존재의 의미구조와 요구구조를 이해하는 데 전념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실존의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주어 ‘앓고 있는 인간’ (Homo patiens)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이러한 수준에 있게 되지 못하면, 소위 ‘인간적인 병’이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병원체가 그 기저에 놓여 있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병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발병의 본래적인 원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예컨대, 불안, 주저, 성급함, 쫓기는 기분, 무의미의 느낌, 허무감, 이러한 것들은 순수하게 물리적 치료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환자들의 병이다. 이 ‘인간적인 병’들은 가능하다면 약품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심리치료에 의하여 퇴치되지 않으면 안된다.<sup>13)</sup>

우리는 인간적인 병의 전형(典型)을 노이로제라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이 노이로제의 주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충격적인 상황조차도 외부적인 원인만으로는 노이로제가 되게 하지 않는다. 충격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Konstellation), 즉 어린 시절부터 인간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역사는 병의 중대한 요소가 된다. 환자는 그가 그

12) Jores A(1956). 앞의 책. 10-23.

13) Jores A(1966). 앞의 책. 11ff.

속으로 빠져들게 된 우연한 조건에 의해 발병하지는 않는다. 환자는 말하자면 그가 태어난 첫 해부터 계속 그의 발병에 관여하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발병은 성인이 된 후에야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무의식도 병을 만든다. 병은 '주체의 시행'으로 된다. 요레스에 의하면 이러한 견해는 비단 신경질(히스테리), 강박신경증, 불안신경증, 우울증 등에 적용되어야 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장애와 또 의학기술의 진단학이 아무런 검사소견도 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병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심신적인 조건이 모두 중시되는 그러한 질병으로는 기관지천식, 고혈압, 비대증, 위축증(체중감소증), 만성설사나 변비, 궤양, 많은 종류의 피부병, 류마티즘, 장염, 당뇨병, 수면장애 등이 있다.

그러한 질병의 발발을 조사해보면, 신경증심리학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유혹 받는 상황과 단념하는 상황을 맞이해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압박받는 증세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 삶의 상황에 의하여 특정한 발전요구와 발달요구가 제기되는 데서 유혹이 발생한다. 환자는 그의 내면적 및 외면적 생활기록과 성격형성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환자는 심적·정신적으로 자기의 가능성을 뒤로 밀치고 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자는 병나게 된다. 신체 기관의 고통은 실존적인 장애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기관의 고통을 꿈, 성격이상, 심리적 결합과 결핍현상처럼 해석하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신체기관정신병(Organpsychose)에 대해서도, 즉 다른 망상대신에 나타나는 신체기관들의 이상유희(Verr cktspiele)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위기는 **육체화(somatisiert)**되고 이로 말미암아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수고는 짐짓 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실존위기는 몸의 이상, 즉 병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좀더 강한 정신력을 가진다면, 많은 심신상관학적인 질병과 육체적 질병은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병은 얼마나 자주 생기는 것인가? 하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요레스에 의하면 우리는 대단히 많은 병을 앓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병든 존재이며 병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레스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전의 내과의학에 관한 교과서에 의하면 약 350가지의 내과질환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의 종류를 전부 말한다면 병의 가치는 그 보다 훨씬 많으며 다른 분야의 병까지 다 합친다면 인간의 병은 중요한 것만 골라서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3000가지나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50가지의 내과질환 중에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은 불과 70가지의 병뿐이고 3000가지의 질환 중에 약 2500종류의 질환은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2500가지의 질환이 전부 외부적인 병인(病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문제 해결로서의 특수한 인간적인 병의 통일적인 근본원인이 드러난다. 이로써 병의 증후(증상)란 단지 하나의 부수적 현상에 불과하며 그때 그때의 인간의 개별성과 또 그의 특수한 삶의 운명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인간은 3500가지의 질환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의 병만을 골라내어 제시하며, 하나의 새로운 병이 나타나면 그 병은 사라지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sup>14)</sup> 요레스의 생각에 의하면, 병은 개개인을 파괴하는 성질의 원리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의 삶이 외부적인 이유로 또는 내면적인 이유로 자기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면 어떤 정도로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 아주 흔한 병에서는 자기실현의 방해가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적인 병'에서는 실존이 정체되게끔 하는 '내면적' 이유들이 있다. 가령 심리적 압박, 불안, 발전의 무능력과 정체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생성저해의 양(量)이 심적·정신적 성장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병을 앓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야생동물들이 감금상태에서 성장이 위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몸에 배도록 배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성장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요레스는 '인간적인 병'을 감금된 상태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구금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을 벌주기 위해 —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 사람을 가두어 두곤 했다. 감옥에서 발버둥쳐 보았자 모든 발전의 가능성은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희망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믿음은 감옥의 장벽에 막혀 부서지고 만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많은 포로들이 극악한 생존 조건에서도 그들의 목표와 가치를 확고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치시대의 강제집단수용소에서조차 내면적인 발전을 해왔다. 히틀러의 극악무도한 주구들과 취조관들도 그들의 내면적인 발전을 방해할 수 없었다: 예컨대 폴랜드의 성인 콜베(Kolbe)신부, 성녀 에디트 슈타인(Edith Stein)수녀, 빅토르 폰 프랑클(Victor E. Frankl) 등이 그러했다. 심신상관학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는 그 환자가 속박 받고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것으로 체험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달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개

14) Jores A(1956). 앞의 책. 28f.

인적 논리”(Privatlogik)에 따르는 해답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환자가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변경시킬 수 없을 때라도 어떤 삶의 상황에서라도 정신적 비약을 할 수 있다고 의사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된다. 요레스가 말하는 발전(Entfaltung)은 우리의 심정이 욕구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방해물(발전을 막는 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그 방해물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수정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와 고통을 통해서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요레스에 의하면 인간이 단념할 경우와 진정으로 토론을 해야할 경우에 비접하게 굴면 많은 병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병이 나면 긴장은 줄어들고 불편했던 것들을 의식의 변두리로 밀려나간다. 그래서 병은 사람을 안정시킨다. 병은 온갖 종류의 장점들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내면적 내지 외면적 발전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병 속에는 죽음의 현상이 바로 비쳐지기 시작한다. 사멸하고 있는 유기체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갖지 못하고 종래에는 인간은 그의 삶을 잃고 만다.<sup>15)</sup>

### 3. 늙음과 죽음의 의미

우리는 앞에서 요레스가 병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는 그런 연후 의학적 인간학의 근본 문제이자 인간의 본질인 늙음과 죽음의 의미를 파고 들어간다.

늙음과 죽음은 둘 다 심리학적으로, 또 심신상관학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늙는다는 것 그 자체는 물론 병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나게 되는 기계와 같은 것으로 인간의 노쇠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히 서양에서는 인간의 노쇠를 낡은 기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의 노쇠와 낡은 기계를 비교해 본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비뚤 생각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관은 결코 기계가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며 존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장기이식을 인간신체의 존엄성과 함께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5) Meyer Adolf-Ernst. Grundrichtungen der Psychotherapie und ihre Modelle. (hrsg.) Meyer Adolf-Ernst., Freyberger H. 앞의 책, 25-48.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나이와 더불어 인간은 성숙하며 삶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현존재의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강점(強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젊음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현대에서는 이 점을 쉽게 망각하고 있다. 늙어서도 인간은 성숙할 수 있고 “진실로 인간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삶의 지식이 풍부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노인들이 높이 평가되어 왔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극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특히 유가에서의 노인공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적·정신적 성숙이 병행되지 않은 채로 **조로(早老)**한다면 그것은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성숙과정이 중단되거나 일찍 감치 발전단계가 퇴행한다면 우리는 이 경우 병들었다고 연역해 볼 수 있다. 조로(早老)는 “심인성(心因性) 죽음”(psychogene Tod)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로는 아무런 성숙도 자기발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 있다고 요레스는 말한다. 희망은 항상 여전히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만일 인간이 생성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고 믿게 되면, 인간은 삶의 의지가 마비되고 스스로 죽음으로 자기를 내던지게 된다. 자살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희망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다. 어떤 자살자들은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키운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요레스는 이러한 죽음의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말하는 ‘죽음의 충동’(Todestrieb)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숨을 쉬기 위해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다는 확인만으로도 자살의 해명을 위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암을 만드는 독성물질과 재료에다가 무의미의 분위기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순수한 쥐 한 마리를 격리시켜 장에 오래 가두어두면 83%까지 악성종양이 생기는데, 같은 종류의 쥐에게 스스로 달릴 수 있도록 쳄바퀴를 달아주면 암발생률은 43%까지 줄어든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쥐들은 암의 고통을 훨씬 더 잘 견딘다고 한다. 요레스의 주장처럼 더 이상 아무런 발전가능성이 없는 채로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 맞다면, 인간적인 병을 발전의 최소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의 생활사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발전을 성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병’들을 발전의 **최소상태(Entfaltungsmimum)**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병은 대응실행 내지 어떤 특수한 실행을 한다고 한다. 바이쯔젝커가 이것을 인간의 능력(Können)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병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요레스도 말한다. 육체적인 것으로의 이행(移行)으로 인간은 완

전한 파멸을 면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병을 대신 선택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병으로의 도피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요레스는 소위 연금자의 사망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조기에 연금수혜자가 된 함부르크의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중인 같은 동년배의 동료들보다 놀라울 만큼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적시되었다. 그러므로 종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치명적일 수 있다. 인간은 뭔가 유용한 일을 하거나 어디서나 뜻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세상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간은 견디어 낼 수 없다. 이웃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때때로 빨리 죽는 것을 원하는 데로까지 이른다. 요레스는 이와 관련된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기록했다: “나는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일찍부터 매우 칭송을 받았지만 말년에는 쓸쓸하게 혼자서 자선사업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 죽음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여가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녀가 일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온몸에 부스럼(Oden; 浮腫)이 퍼져있었고 고혈압과 심부전(心不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사의 치료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무대출연 50주년 기념일까지는 살기를 원했다. 그날 큰 잔치가 벌어지고 관중들이 그녀를 또 한번 주목하기를 희망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으나 몇 사람만 관심을 보였을 뿐이고 신문에서도 작은 기사가 실리게 된 것에 대해 그녀의 지인들이 염려했다. 며칠 후 그녀는 죽었다.”<sup>16)</sup>

요레스에 의하면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 첫째는 전염병, 사고, 자연재해에 의한 우연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수많은 가능성이 다 없어진 삶의 종말에 이르는 죽음이다. 이 두 번째 경우에 죽는다는 것은 필요성 포기의 활동(Akt)과 같은 것이다.

#### 4. 치유의 의미

요레스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의 치유방법이 있다. 그는 실용적인 방법, 수술적인 방법, 심리치료적 방법을 구별한다.

인간의 신체기관은 그 자체로 놀라운 치유력(Heilkräfte)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병과 평형장해가 발생할 때 치유력이 개입한다. 의사는 모름지기 이러한 본성적인 치유력(vis medicatrix naturae)의 작용방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의사는 이 본성적인 치유력을 후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득한 옛날부터 이런 격언이 있

16) Jores A(1956). 앞의 책. : 115

어 왔다. “의사는 심부름하고 자연이 병을 낳게 한다.”

우리는 부상과 전염병에서 자연의 치유력을 아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병은 그러한 외부적인 병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인간적인 병들은 저절로 낳는 일이 드물며 대체로 만성화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러한 발병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임을 경험한다.

현대의학은 기생충에 의한 질병과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과론(因果論)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성능이 우수한 약품들의 도움으로 유기체 안에서 말썽부리는 것들은 제거된다. 이런 경우 의사는 고장난 기계를 수선하는 기술자와 거의 같다고 할 것이다. 기술주의와 실용주의는 내면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인간적이고 심신상관학적인 질환들은 대체로 순전히 증후에 따라 치료된다. 예컨대 기관지천식이 그러하다. 의사는 천식발작을 확실히 저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자의 병은 아직 치료되지 않는다. 환자는 언제 다시 닥쳐올 발작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한다.

우리는 현대의학의 의붓자식들이 자연치료자와 돌팔이의사에게로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주술치료” 즉 환자들의 맹신에 걸맞은 치료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는 실제로 건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위약(偽藥, Placebo)효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종종 중립적인 재료가 위약효과를 보이면 특정한 약과 똑같은 치료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위 기적치료란 매우 변덕스러운 것이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 병들은 재발한다. 요레스는 주술적인 구성요소도 심리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중요시하지는 아니했다.

요레스는 환자의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작업(Erkenntnisarbeit)을 중시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의 내적·외적 성장에 대한 통찰은 고도의 치유요소라는 것이다. 요레스는 노이로제와 심신상관학적 장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체기관의 질병도 심리치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 5. 위탁(委託)받은 인간 : 그의 의학철학

요레스는 1967년 『위탁받은 인간존재』<sup>18)</sup>라는 그의 저술을 통해서 의학적 인간학

17) Meyer Adolf-Ernst., Freyberger H(1996). 앞의 책. : 15-24

18) Jores A. Menschsein als Auftrag. Bern : Huber, 1967.

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 책은 그의 의학철학사상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용도(사용목적)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참된 인간적인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하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철학적 인간학의 근본 물음에 대해서 요레스는 그 나름대로 임시적일는지 몰라도 해답을 주려고 했다.

요레스는 그 자신이 독특한 가톨릭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면서 매우 보수적인 사상가들로부터 많은 정신적인 면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서 특히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는 프랑스의 떼야르 드 샤르댕(Teillard de Chardin, 1881-1955)<sup>19)</sup>을 들 수 있다. 떼야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인기 있는 저술가였으며, 그의 사상은 찬반간에 많이 논의되었다. 그의 관심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그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 『우주에서의 인간』(1959), 『인간의 발생』(1961), 『신의 영역』(1962) 등. 떼야르의 저술들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저서들은 교회 안팎으로부터 시대적인 요청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떼야르에 의하면 하나의 거대한 '설계'가 전체 진화발생의 기저에 놓여 있다. 인간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생물은 그 설계의 형상생성(Gestaltwerden)을 목표로 하고 발전한다. 물질은 이미 하나의 원시적인 의식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의 나무'(Lebensbaum)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식의 활동은 점점 더 세분된다. 이것은 소위 **진화과정**의 주요 내용이다. 인간에게서 의식은 자아의식으로 된다. '정신'은 스스로 통지(通知)한다. 모든 앞서 가는 생물들은 '생활권' 안에서 생존한다. 그러나 **정신권(Noosphäre)**은 인간과 더불어 시작한다. 그래서 '정신으로 되는 것'(Geistwerden)은 인간에게 부여한 과제이다. 이것은 불분명한 목표설정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떼야르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정신적 실존이 의미하는 것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신인(神人, Gottmensch), 즉 그리스도이다. 미래의 인간이 어떤 본질형상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당겨 실행되어 있다. 인간이 이 본질형상에 도달하게 되면, 하늘은 지상에도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Reich Gottes)가 시작할 수 있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서술한 것은 떼야르 드 샤르댕의 철학을 라트너가 자기의견을

19) 프랑스의 예수회 소속신부이며 고생물학자로서 소위 '북경인' 발굴에도 참여했고 말년에는 영성신학자로서 많은 저술을 했다. 그는 과학과 신학의 조화를 시도했다. 그는 프랑스와 영미권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독일과 이태리의 정통 가톨릭 철학자, 특히 형이상학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았다. Coreth E. 철학적 인간학. 진교훈 역. 서울 : 종로서적, 1984 : 41-42.

집어넣지 않고 요약해 놓은 것<sup>20)</sup>을 필자가 옮겨 본 것이다. 그러나 잠시 유행하다가 마는 유행철학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요레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해 보는 것은 그런 대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철학사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해 본 사람들에게는 페야르의 사상이 '영적 생명의 비약' (spirituellen Lebensschwungkraft ; elän vitale)에 관한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의 사상으로부터 매우 많은 정신적인 것을 차용해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르그송은 주지하다시피 우주의 정신적 배경에 관하여 확신을 가졌으며, 진화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추진을 보았으며, 전승되어 온 종교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 놓았었다. 베르그송에게서 성인(聖人)들은 생명의 비약(Elan vital)에 의해 영적으로 된 인간들이며 그들은 생물학적인 요소들을 거의 완전히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놓은 인간들이다. 페야르나 베르그송이 말하는 성인(聖人)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으나 여기서 영성신학을 논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요레스의 의학철학이 페야르 사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요레스는 페야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화의 정점과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신앙고백일 뿐이며, 인식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사상가중에는 스위스의 문화철학자로 알려진 예안 겐제르(Jean Gebser)가 있다. 그의 주저는 『기원과 현재』(I 권과 II 권으로 나누어 있고, 각기 1949년과 1953년 출판)이다. 겐제르에 의하면 인류는 여러 가지 단계의 성장과 생성을 거쳐서 완성되었다고 한다. 인류는 처음엔 시원적(始源的, archaischen) 세계상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인간에게는 자아의식(Ichbewußtsein)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어서 주술적 세계가 뒤따랐다. 거기서는 인간은 여전히 자연 속에 얽혀 있었고 공간에 대한 느낌도 시간에 대한 느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은 집단적으로 살았으며 주술과 부적으로 '정신 생활'을 도맡았다. 그런 연후 신비적인 단계로, 마음의 의식화되는 단계로, 외계(外界)에 대한 내면적 형상들의 투사의 단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이스인은 마침내 정신적(mental)인 수준으로 올라왔었고 드디어 정신적(geistig)인 능력을 발견해냈다. 회람인들은 지성적인 세계의 진정한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자기실현의 예찬이 있게 된 이후부터 인간은 통합(Integration)의 시대에 돌입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이전의 단계의 값진 것을 종합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인간과 세계가 통일(하나)되는 것이 비로

20) Rattner J., Danzer G. 앞의 책, 95.

소 문제되었다. 그러나 켈제르의 문화철학이 시사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 요레스가 켈제르의 견해에 대해서 경탄해 마지하는지 의아스럽다고 라트너는 말하기도 한다.<sup>21)</sup>

요레스가 특별히 존경해 마지않는 철학자는 가톨릭 형이상학자인 페터 부스트(Peter Wust)와 경건한 도덕철학자인 요제 피퍼(Josef Pieper)이었으며, 그외에 음의 제자인 에리히 노이만에게서도 정신적인 지혜의 도움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요레스는 그들을 그의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세계관을 옹호해 주고 그의 사상의 지주가 되는 사람으로 지목했다. 요레스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교는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과 철학의 세계관보다도 우월하다고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필연성으로 정초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 발전의 목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짧은 시사만으로도 족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아직 어떤 학문도 존재하지 못했던 시대에 인간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이 정당함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에서 오늘 가능한 것처럼 과학은 그러한 상태에 있어 본적이 없었다. 그리스도교 사상이 계시종교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옳다. 그러므로 서양인이 진화의 과정에서 현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덕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시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총을 입은 이 서구인이 오늘날 그리스도교로부터 등을 돌리고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고 독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지금까지 키워온 발전 과정의 기반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몽매한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sup>22)</sup>고 그는 통탄해 마지않았다.

요레스는 소위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포이에르바하,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을 심하게 통박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구축해 나갔다. 그는 우리가 지난날의 초성적인(supernaturalistische) 이념을, 모든 것이 아직은 목가적이고 조화로웠다고 전해지는 거룩했던 중세를 되돌아보도록 하고 싶어했다. 이것은 20세기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낭만주의 내지 이상주의라고 사람들은 말할는지 모른다.

요레스는 그의 저서, 『인간과 그의 병』의 한 장 전체를 “성서적 관점에서 본 병”에 할애했고, 임상사의인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심지어 “병을 죄 또는 원죄(原罪)의 결과”<sup>23)</sup>라고 말했다. 라트너는 이러한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의사들을 너무

21) Rattner J. 위의 책. 96. 라트너는 켈제르를 2류 문화철학자라고 평가절하한다.

22) Jores A(1967). 앞의 책. 161.

어렵게 만든다고 평했다.<sup>23)</sup> 요레스는 거의 2000년 전의 시대정신을 담은 문헌인 성서는 역사상 가장 흥미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성서는 유럽을 오래 동안 지배했고 정신적으로 규정지었다. 그러나 오늘날 성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료되지 못한다고 요레스는 심히 통탄했다. 그는 『인간과 그의 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존재란 하나의 과제이다. 그 과제는 창조의 수행에 외경심(畏敬心)을 가지고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더 높은 존재인 하느님에 의해 제기되고 위탁을 받은 종교적 과제이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위탁을 가장 뚜렷하게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종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바로 서양인이 사람됨(Menschwerdung)에 이르는 도상에서 가장 폭넓게 진보되었다는 것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설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할지라도, 그리스도교가 본질적으로 서양을 각인시켜왔고 서양사람의 발전과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교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인간은 역사의 목표이자 절정이다. 자연은 인간의 하녀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지구를 자기에게 예속시킬 위탁을 받았다. 진화론도 성서의 견해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때 모순된다는 의견에 충분한 적이 있었다. 진화론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성서의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거듭 거듭 신학자들에 의해 상세하게 해설되고 있다.”<sup>25)</sup>

요레스의 말대로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성서적 해석과 진화론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창조신학자’(Schopfungstheologie)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긴 하나 이전에는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과 현대자연과학에 대적해서 분개하고 투쟁을 벌였다. 아마도 그들을 허용했다라면 그들은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발자들을 좀더 일찌감치 화형장으로 보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중세에서는 그런 일은 흔히 허용되는 것이었다. 요레스는 외경과 겸손이 최고의 덕이라는 것을 신부가 하듯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어했다. 그러나 외경스럽고 겸손한 태도를 매우 상대적으로 만드는 전혀 다른 덕을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외경스럽고 겸손한 덕은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굴복과 크게 다

23) Jores A(1956). 앞의 책, 140.

24) Rattner J. Danzer G. 앞의 책, 97.

25) Jores A(1967). 앞의 책, 157.

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요레스는 정신적으로 독립된 윤리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요레스는 니체(F. Nietzsche)가 원인애(遠人愛, Ferstenliebe)를 근인애(近人愛, Nächstenliebe)와 대조시키면서 추천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나 요레스는 니체와는 달리 인간 즉 지구상의 인간에 충실한 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레스의 그리스도교적 사상은 의학과 심신상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우선 요레스의 불멸의 명저인 『천식환자』<sup>26)</sup>와 『요레스 실천적 심신상관학』을 추천하는 것으로 충분한 해답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저서는 실제로 지금도 의사들이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책들이다. 특히 『실천적 심신상관학』은 1970년대 독일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으로 활동하는 30명의 교수들과 함께 저술하고 그가 편집대표자로 출간한 책이다. 전술한 『천식환자』는 천식에 관한 전문임상의(臨床醫)인 케레크야르트(M. v. Kerekjarto)와 함께 공저한 책으로서 일종의 전문적인 교과서이자 디렉토리로 정평이 나있는 책이다. 요레스의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의자로서 형평을 잃고 있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거나 그리스도교에 대한 몰이해와 반감(反感)을 가진 의사들도 이 책들에 대해서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요레스가 현대의학에 미친 공헌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문제는 그가 전문 내과 의사의 좁은 견문을 가지고 의학적 인간학의 거대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조건 영웅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틴어의 격언처럼, 그가 위대한 것을 원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우리는 말해도 좋을 것이다.

요레스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랑이 풍부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전해졌다. 폰그라츠(L. J. Pongratz)는 그의 저서 『자기묘사를 하는 심리치료(정신치료)』<sup>27)</sup>에서 요레스는 자기의 삶을 누구나 호감을 느끼도록 보고했다. 그는 후설과 켈러가 격렬히 비판한 프로이트학과 등의 '심리주의'(Psychologismus)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적 고찰 특히 심층심리학적 고찰이 때때로 난마처럼 얽혀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정신적 자세와 입장에 한 가닥 빛을 던져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레스는 폰그라츠가 떠낸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의 부친은 여러 대학교에서 병리해부학을 가르쳤으며, 자기는 완전히 비정치적인 성장과정을 가졌지

26) Jores A. von Kerekjarto M. Der Asthmatiker. Bern : Huber, 1969.

27) Pongratz L. J. Psychotherapie in Selbstdarstellungen. Bern : Huber, 1973 : 7.

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치즘의 만행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학과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조용한 탐구자의 세계가 부서졌다. 그는 드디어 야당뿐만 아니라 도무지 예상을 할 수 없는 정권과 충돌하고 말았다. 사형연도의 위협이 그를 가톨릭으로 귀의하도록 인도했다. 교회는 그에게 일종의 구원의 세계였다. 이 민감한 탐구자이자 비직업적인 철학자가 동경해 하지 않았던 구원의 세계는 교회였다.

의학적 인간학으로 가는 길은 자연과학만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으며, 사회적 역사적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들이 절대적으로 불가결하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모 슬하의 어린 시절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평균적인 대중적 생활에서 알게 된 아주 단순한 철학에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지성의 포기'이며 또한 '도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요레스는 말했다. 그에 의하면 절대적인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념', 즉 모든 선의(善意) 가진 사람들(wohlmeinende Leute)이 흠송하는 것이다. 수많은 종류의 배들이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정박할 항구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혼란스런 마음도 안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요레스는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면서 철학을 넘어가고, 의학에 대한 진정한 인간학적 사고를 추구하고, 자유롭고 예리하고 그러면서도 실재와 부합하는 것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의학적 인간학이라고 말했다. 필자도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 (philosophia est ancilla theologiae)라는 말의 깊은 뜻은 철학을 포핌(褒貶)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원래 묻는 데서 끝이고 궁극적인 답은 신학이 즉 종교가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것일 것이다.

색인어 : 의학적 인간학 · 심신상관학 · 앎고 있는 인간 · 환자의 인격 · 그리스도교 사상 인과원리

=ABSTRACT=

## Medical Anthropology by Arthur Jores

CHIN Kyo-Hun\*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on medical anthropology by Arthur Jores is to evoke physicians the importance of psychosomatics and anthropological medicine.

Arthur Jores ha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psychosomatics and medical anthropology. He had criticized the contemporary medicine which had been based on the law of causality. He had empathized that physicians should give thought to the 'homo patiens' and inner cause of psychosomatic disease. According to Jores, a human-being is not a tool but a person that has a dignity. A patient will die when he loses his hope for life. Therefore, physicians should understand fully the patients and should cure the patient's psychosomatic disease not only by the medical treatment based on causality but by the growth of patient's own personality. In this context, we understand why Jores had criticized freudian's psychologism and that medical anthropology by Arthur Jores is based on catholic thoughts. Medical anthropology is completed not by natural science but by a full understanding of social, historical, spiritual world.

I think, physicians could be made better by attending to what is important and worthwhile in medicine, namely medical anthropology. An emphasis on medical anthropology could enhance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nd also result in a more satisfying practice for exemplary physicians. Medical anthropology can thus enrich the practice of medicine by reminding us of our basic commitment for physicians.

**Key Words** : Medical Anthropology, Psychosomatics, Homo patiens, Patient's Personality, Catholic Thoughts, The Law of Causality

---

\* *Department of Education of Ethics, Seoul National University*